

민원종류

일반민원

제목

박정보 서울경찰청장, 은평 경찰서장 김현환 교육 좀 시켜라

내용

시민에게 사랑 받는 당당한 경찰이라면서

"범죄 소굴"인양 누가 쳐들어 올까봐 바리케이트 죽 쳐놓아 주차장 사용도 못하게 해놓고

건물은 밖에 설치되어 있는 (바리케이트 연장선의) 지하철의 승차 게이트로 드나들게 만들어 놓은 게
당당한 경찰이 할 일이나?

도대체 누구 위한 바리케이트냐?

대국민 상대냐? 은평 경찰서는 범죄소굴이나?

아니라면, 당장 바리케이트 걷어치우게 해라

1. [주차장법] 제19조의 4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.

2. 건물 현관 들어서자마자 바로 왼쪽에는 칸막이 쳐 있는 공간이 있는데
그 칸막이 안에는 의자들, 빵, 커피 음료 등 제공하는 시설이 들어 있었고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,
불법 건축물 아냐?

사건 이해 돕기 위해 만난 이소영 경감 보자마자

"경찰서 몇 군데 가봤지만, 이런 개떡 같은 경우는 참 본다"

"다 그런다. 개떡 같다니, 말 함부로 하지 마라"

"상전이 종복에게 한마디 한 건데, [헌법] 제7조에 규정되었듯이 공무원은 종복인 것도 모르냐?"

첨부 파일